

공 개



의안번호	제 55 호
보 고 연 월 일	2023. 12. 20. (제 22 차)

보
고
사
항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12. 20.

1. 보고주문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제조업 중심의 現회계기준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新산업인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모두 포섭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마련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을 보고드립니다

3. 주요골자

가. 추진배경

□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 新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이 활발히 거래되어 여러 회계쟁점 발생

- 現회계기준에 일부 지침*이 있으나,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토큰 거래를 모두 포섭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정보가 제공

* 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사항(Agenda decision, '19.6월)은 가상자산 보유목적에 따라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단편적 내용 제공

⇒ 국내에 널리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회계처리 지침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가상자산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

나. 작업반 운영 및 설명회·전문가 간담회 논의

□ 회계기준 적용지원반 실무작업반*은 '22.4~12월간 8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관련 회계쟁점을 파악하고 쟁점별 지침(안) 작업

* 회계기준원, Big4 회계법인, 가상자산 전문가로 구성

※ 증선위('22.3.11.)는 실무쟁점 파악 및 대안검토를 수행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회계기준원 내에 운영하기로 결정

- 금융위,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에 대하여 검토·보완 후 '23.7.12. 공개

□ (의견수렴) '23.7~8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상장협·코협, 한공회에서 3차례 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 수렴

○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23.9~10월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

* (주요의견) 세부쟁점별 가이드라인 추가 필요, 시행시기 유예 등

** 금감원, 회계기준원 및 한공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

(별첨) 주요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1] 적용 대상 등

□ (적용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 (이하 “토큰 등”)

*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CBDC)는 법에 의한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❶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❷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❸ 대체가 가능(Fungible)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도 감독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

□ (시행시기) '24.1.1.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가능)

○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위탁토큰 회계처리의 경우, '24. 7. 19.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 (경과조치) 회계정책 변경시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거나, 최초 적용일에 누적효과를 인식하여 소급 적용

(2) 「토큰 발행 기업」의 회계처리

(②-1)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관련 회계처리

- 플랫폼 및 토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무형자산 기준서 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개발활동에 해당하여 개발 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자산의 창출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

- 플랫폼 및 토큰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무형자산 기준서 상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②-2) 판매계약 관련 회계처리

※ 발행자가 토큰 판매계약에 따라 유틸리티 토큰을 전송하는 경우 수익인식 방법

-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수령자가 발행자의 고객이라면 수익기준서를 적용하며, 회사의 수행의무 이행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 식별된 수행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계약부채로 인식
 -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백서(White Paper)*나 판매 관련 약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플랫폼 및 토큰 발행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대중들에게 프로젝트의 내용 및 토큰 배분 계획 등 포함

< K-IFRS 제1115호에 따른 수행의무 예시 및 수익인식 시기 >

구분	수행의무 예시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인식 (K-IFRS 제1115호)
예시1	• 가상자산(토큰)의 이전	• 가상자산 이전 시
예시2	• 회사(발행자)가 약속한 대로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구현	•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점
예시3	• '가상자산 결제를 통해 얻게 되는 재화나 용역'을 토큰 보유자에게 이전	• 해당 재화나 용역 제공 시

□ 상기 사례가 모든 토큰 및 플랫폼의 개발을 다루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유형의 수행의무가 식별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의무의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발행사의 의무와 이행시점에 대해 충분히 공시해야 함

□ 발행자는 토큰 판매계약 개시 시점에 관련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계약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류로 간주

* 백서의 변경이나 회사 정책의 대외 발표 등에 따른 중요한 판매계약 변경 시

(②-3) 판매계약 이외 배분 관련 회계처리

□ 유틸리티 토큰에 내재된 권리의 유무 및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

* 예)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 ① **(개발팀원)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하는 경우, 개발근로를 제공받는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의제 의무 포함)를 부채로 인식하고 급여 등으로 회계처리**
- ② **(용역대가) 개발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한 경우, 개발 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관련 원가를 회계처리**
- ③ **(무상배포) 발행자가 무상배포(airdrop)한 토큰은 배포 시점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에서 고려(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와 유사하게 회계처리)**

- 인식한 부채는 토큰 관련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토큰 배분수익으로 인식

- 플랫폼 및 토큰 개발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하여 발행자에게 토큰이 배분되는 경우 배분시점에는 회계처리하지 않음

(②-4) 발행 후 유보(reserved) 토큰 회계처리

- 배분되지 않고 발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유보(Reserved) 토큰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없음
 - 유보토큰이 추가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이미 배분되어 있는 토큰의 공정가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배분계획 등의 정보를 공시

(②-5) 토큰 증권(STO) 발행 시 회계처리

- 토큰증권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토큰 증권 발행 기업」은 발행된 토큰 증권이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결정해야 함
 - 토큰증권의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건별 분석 필요

(3) 「토큰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

(③-1) 일반원칙

- 취득한 토큰이 금융상품인지, 취득목적이 판매목적인지, 판매목적 外인지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 토큰의 종류별 회계처리 개요 >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판매 목적 外	무형자산, 기타자산*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만 기타자산으로 분류 가능

(③-2) 최초측정

□ 투자자는 매우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토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토큰 최초 취득원가는 취득 방식과 경로에 따라 상이함

① **(유상취득)** 토큰을 유상취득(예: ICO, TPA, 거래소를 통한 제3자 취득)하는 경우, **구입가격(매입가격)**에 토큰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취득 금액을 산정

※ 토큰 배분 이후 유상매입 등을 통해 수행의무 완료 이전 단계에 발행자에게 재유입되는 경우, 계약부채의 잔액이 있다면 우선 계약부채와 지급대가를 상계

② **(플랫폼 운영, 채굴을 통한 취득)** 제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이나 채굴을 통해 토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발생 비용이 토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라면 이를 토큰 취득 금액으로 인식

③ **(용역제공대가 또는 기타 교환에 따른 취득)** 토큰을 플랫폼 개발 또는 운영에 기여(용역 제공)한 대가 또는 기타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에 의해 취득한 경우

-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큰의 공정가치로 토큰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
- 다만, 토큰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④ **(무상 수령)** 마케팅 목적으로 발행자가 토큰을 무상배포(airdrop) 하는 경우 수령 당시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최초 수령시 영(0)으로 인식

- 기타 발행자 외 제3자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로 무상 수령한 토큰의 경우,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영(0)으로 인식

⑤ **(토큰 증권 취득)** 금융자산인 토큰 증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감

(③-3) 후속 측정 및 손상평가

□ 취득한 토큰의 분류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

- (재고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 중개기업이 취득한 경우, 동 토큰이 일반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고 국제시세 등으로 단기간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고 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가상자산을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무형자산)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K-IFRS 적용시)을 선택 가능. 다만, 특정 유형*의 토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면, 같은 유형의 토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함

*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으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유형을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 가능

- 활성시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원가보다 상승한 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원가보다 하락한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재평가모형은 활성시장이 존재할 경우만 적용가능하며,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

- 원가모형을 적용할 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동일한 토큰을 다수 또는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

- (기타자산) 질의회신(2018-G-KQA006,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에 의해 토큰을 재고자산, 무형자산 외 기타자산의 계정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토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음

- (금융자산) '금융상품 또는 금융자산·금융부채' 기준서를 적용하여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후속 측정함
 -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측정
 - 토큰 증권이 채무상품인 경우에는 토큰 증권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시 기대신용손실 인식

(③-4) 토큰 처분

- 보유자가 토큰을 매각할 때, 토큰 매각 행위가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이라면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 토큰의 종류별 영업손익 표시 사례 >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재무제표상 손익 표시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영업손익(매출 등)
	판매 목적 외	무형자산 기타자산*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만 기타자산으로 분류 가능

-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
 - 토큰 최초 인식시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관련 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이므로 영업손익에 해당
 - 다만, 회사가 토큰 등을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외로 취득했다면, 세가지 요건* 충족시 처분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 여부 고려

* ① 사업목적으로 정관에서 규정하는지, ②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는지, ③ 회사 전체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지

- 1회성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관상 사업목적, 금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조건과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④-1) 고객이 위탁한 토큰 회계처리

- 사업자 보유 고객위탁 토큰의 경우, 고객 또는 사업자 중 해당 토큰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

* 경제적 자원의 통제(Control of an economic resource):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경제적 자원을 통제 하는지 판단 (하나의 지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님)

*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② 가상자산법(안),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 사업자의 파산·해킹 등의 상황 발생 시 위탁 고객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고객위탁토큰 및 관련 부채를 인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 고객위탁토큰을 사업자 자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평가손익은 상쇄하여 계상하고 주석에 관련내용을 공시
- 사업자가 고객 위탁 토큰을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④-2)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큰 회계처리

- 토큰 보유 목적(사업 목적) 및 영업 행태에 맞게 회계처리
- (일반) 관련 규제 등의 사유로 인해 매도·중개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
-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K-IFRS 적용시)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후속 회계처리

- (매도 또는 중개 목적) 중개기업인 사업자가 일반상품(Commodity)인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고자산으로 분류 후,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고 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기타자산 가능

- (영업에 사용)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

(④-3)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큰 회계처리

- 사업자 보유 토큰의 처분 관련 회계처리 및 공시사항은 일반적인 「토큰 보유기업」의 토큰 처분 시 안내사항을 참조

(5) 가상자산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 가상자산의 분류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

< 토큰의 공정가치 측정 관련 상황 >

분류	상황	참조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적용(공정가치 측정)	1.
	원가모형 적용시 손상의 회수가능액 산정(순공정가치 측정)	1.~3.
일반상품 중개기업 보유 재고자산	순공정가치 측정(공정가치-매각부대원가)	1.~2.
기타자산*	공정가치 적용	
사업결합	취득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1.~3.
증권 토큰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이 질의회신(2018-G-KQA006)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 경우

(⑤-1) 활성시장의 가격 적용

□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 ❶활성시장*이 있을 경우에만 ❷활성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 가능

*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국내외 시장 모두 포함)

- 통상적으로 가상자산은 같은 유형(類型)* 내의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어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표시

* 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임

□ (활성시장의 판단)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활성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양적 평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가상화폐가 거래되어야 함

* 보고기간동안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상자산 특성상 일별로 거래가 단절된 경우 활성시장으로 보기 어려움

** 거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거래량회전을 등)를 이용하여 규모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야 함

㉡ (질적 평가) 가격결정 정보를 확보할 때 데이터 원천의 신뢰성이 높아야 하며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되는 화폐(원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등)

□ (공정가치 측정) 측정일 현재 ❶접근 가능*한 ❷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❸시장참여자 사이의 ❹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

* ❶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기업 별로 접근(거래) 가능한 시장은 다를 수 있으며, 기업 관점에서 고려

❷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시장 정보를 고려하되 반증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임

❸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자전 거래 등으로 거래소 등에서 형성된 시장의 공시가격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될 수 없음

❹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예시) 충분한 시장 노출이 없었음, 매도자가 마케팅활동 수행, 매도의 재무적 어려움, 강제적인 매도 등

(⑤-2) 활성시장의 가격 이외의 관측되는 가격 적용

-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고려)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공정가치 투입 변수로 사용 가능
 -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경우에도 양적·질적 평가요건이 충족되고, 시장참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하여야 함
-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상자산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적용)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접근가능한 공신력 있는 가격이 있는 경우 거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해당 가격지표가 공정가치로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⑤-3) 기타 공정가치 적용

- K-IFRS 제1113호에서 요구에 따라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
 - (가치평가기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 등을 사용
 - (상황에 적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상황 상 시장접근법이 가장 적절
- *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가능

4. 향후 계획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배포 예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기업회계팀	회계감리1국 회계관리국
연 락 처	02-2100-2693	02-3145-7700 02-3145-7750